대규모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된다

조계종부산聯, 10월 31일 벡스코 제2전시장서

전국 불자 2000여 명 동참
금정산 금샘서 관정수 채수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 맡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통해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염원의 장으로도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D~5E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봉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청정한 삶을 발원하는 불제자들의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수계법회는 불교문화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의례의식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참가자들의 연비 의식을 관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매회 삼보사찰, 5대 보궁, 관음성지 등을 방문해 관정수를 채수하고 그 과정을 수계법회에서 영상을 통해 보여주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스님들의 마음을 전한다. 수계법회에서 참여불자들은 관정 의식을 위해 장궤 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한다. 올해는 범어사가 위치한 금정산 금샘의 관정수로 관정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법회를 위해 10월 4일 범어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직접 금샘에 올라 관정수를 채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범어)가 금정산 산꼭대기 샘에 자리를 잡고 샘은 마르는 법이 없이 금빛 물이 흘렀다는 '금샘'의 유래가 전해진다"며 "금샘은 화엄의 바다로, 범어는 불보살의 화신을 뜻하여 중생제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금샘에서 채수한 청정수로 동참하는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전국에서 동참하는 대규모의 수계의식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하며 수계의식에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가 동기도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수계의식에서는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참여해 "죽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로 수계를 받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다"는 사연을 남기기도 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법회 장소를 더욱 넓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벡스코 전시장으로 잡았다. 장소를 이전해 더욱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계율의 청정 문화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연합회 의지로 보인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지난해 봉행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모습.

수계식 전계대화상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맡는다. 갈마아사리는 수진 스님(해인정사)이다. 수진 스님은 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수아사리는 지현 스님(관음사)이 담당한다. 지현 스님은 조계종 계단위원이며 조계종립 송광사 율주다. 존증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심산 스님(흥법사),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혜원정사),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부회장 혜성 스님(해광사), 만초 스님(석태암), 하림 스님(미타선원), 지일 스님(내원정사)이 각각 담당한다.

동참 희망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사찰 신도의 경우 재적 사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불자들은 연합회 사무국(051-501-7554)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참금은 1인 3만원이다. 법회 당일 참석자는 흰색 상의와 편안한 바지를 착용하면 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라며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법명을 받아 불자로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잠시 놓치고 있던 나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법석"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홍법사, 개산 2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5일, 경내서 힐링·쉼 주제로 공연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산 20주년을 맞아 아미타경 독송기도와 가을음악회로 의미를 다진다.

홍법사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경내 잔디 힐링광장에서 '2023 부산문화재단 예술치유 프로젝트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홍법사 개산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 주제는 '힐링'과 '쉼'이다. 음악회는 부산시립관현악단의 연주와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붓다볼 명상지도사들의 콜라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홍법사 동림어린이합창단과 세향합창단이 아름다운 합창곡을 선사한다.

음악회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다. 특히 홍법사는 식당종업원, 백화점 판매원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초청했다. 폭언이나 폭행 등 일터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자리로 선물하기 위해서다.

홍법사는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가족들과 편히 방문해 음악회를 즐기고 쉼을 얻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법사는 이에 앞서 아미타경 48독송 기도를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기도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8독씩 독송하며 기도를 이어간다. 개인 동참은 5만원, 가족 동참은 10만원이다. (051)508-034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무도 수행과 심신치유' 학술대회

한국불교상담학회, 10월 21일 경주 골굴사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선무도 수행의 심신치유 효과를 주제로 학술적 의미를 고찰한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0월 21일 오후 1시 경주 골굴사 경내 선무도대학에서 '제20회 추계학술대회-선무도 수행과 심신치유'를 개최한다. (재)선무도대금강문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총 4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대회는 덕림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이 '선무도 역사관에 대한 일고: 선무도, 불교적 전통인가 불교적 창작인가'를, 안양규 교수(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선무도 수행의 교학적 기원과 목표: 붓다의 정각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동일 교수(동국대 한의학과)가 '선무도 명상 수련의 심신의학적 유효성 제안'을, 명오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이 '초기불교에서 본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한다. 논평은 김지명 강사(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강경구 교수(동의대 중어중문학과), 이강옥 교수(영남대), 최경아 강사(강릉 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가 맡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문경전 가치 알릴 '경학원' 개원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암에 선행·지상·현정스님 주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한문경전연구를 위한 경학원을 개원했다. 통도사는 앞으로 경학원을 통해 한문경전이 가진 가치를 알리고 보전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전했다.

통도사는 10월 4일 경내 취운암에서 경학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경학원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한문불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뜻을 잇고자 문을 열게 됐다. 경학원은 선행 스님, 지상 스님, 현정 스님이 주축이 되어 한문불전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선행 스님은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제방의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했으며 백양사, 선운사에서 강주를 역임했다. 지상 스님은 1986년 통도사에서 출가해 대교과를 졸업하고 법주사와 직지사 강원 중강을 역임했다. 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북경수도사범대학에서 6년간 수학했다. 현정 스님은 前통도사 강원 학감으로 활동했다. 경학원은 앞으로 연구발표회, 도서 출판 및 승가 및 재가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통도사 취운암에 문을 연 한문경전 연구기관인 경학원. 개원식에 참석한 스님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개원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현판 제막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유나 천진 대종사, 율주 덕문 스님, 강주 인해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종정예하께서는 갈수록 한문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 종정 스님의 큰 원력을 잇기 위해 오늘 경학원을 열게 되었다"며 "큰스님의 원력에 함께 마음을 내어 대중스님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경전과 삼장을 연찬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위한 자비행

부산·여수에 총 2억 원 상당 성금·물품 후원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이 한가위를 맞아 소외이웃 및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박수관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진구청 공유의 방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이웃돕기 전달식'에서 성금 및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친환경 쌀(7000만원 상당)과 3000만 원이며, 부산진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전달식에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인사말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성금 3000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베트남 다문화 가정 20세대와 지역 독거어르신 10세대에 각 10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옥 부산진구청장은 감사패를 전하며 "부산진구민에게 희망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선행은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귀감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앞서 19일에 여수를 방문해 1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기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템플스테이 TEMPLESTAY
예약하러 바로가기

가을, 나에게 띄는 쉼표
아름다운 가을길 ~ 직소폭포길 부안 내소사 템플스테이
전북 부안 - 내소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출발인원 : 최소 10명
●상품가격 : 1인 229,000원
용산역 익산역 아가페 정양원 고스락 부안 상설시장 내소사 템플스테이 직소폭포길 이레농원 농장투어 익산역 용산역

나를 위한 쉼표
천년의 숨결, 고려선원 청평사! 템플스테이
강원 춘천 - 청평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출발인원 : 최소 8명
●상품가격 : 1인 149,000원
용산역 춘천역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명동 닭갈비 골목 구봉산 카페거리 청평사 템플스테이 소양강댐 해피초원목장 춘천역 용산역

포항에서 For 休
내연산의 보물 치유의 숲 & 보경사 템플스테이
경북 포항 - 보경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출발인원 : 최소 12명
●상품가격 : 1인 219,000원
서울역 포항역 내연산 치유의 숲 보경사 템플스테이 사방기념공원 죽도시장 포항역 서울역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KORAIL 코레일관광개발
문의 1544-7755
※ 코스별 세부 일정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www.korailtravel.com)